

▶ 2010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지도자대회 성황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 지도자대회에 예상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목회를 배웠습니다”

2010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 지도자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후러싱 제일교회(담임 김종연 목사)에서 열린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 지도자대회에는 당초 예상을 훌쩍 넘긴 2백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지도력 향상을 위해 전 미주 한인 감리교회 중 부흥하는 교회를 직접 방문해 목회 방식, 조직 등 모델 교회의 모든 것을 배우자는 취지하에 1999년부터 시작됐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유일하게 실시되는 평신도지도자 훈련이기도 한 대회는 올해 ‘소그룹 리더 훈련’을 도입, 이에 초점을 두었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현재 전 미주에 3백여 개가 있다. 2020년까지 1천개 교회, 10만 성

도를 세우자는 1천 10만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회를 준비한 이성현 목사(파트너교회연합회 회장)는 “1천 10만 운동의 근간은 ‘소그룹’이라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개척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초 한인목회강화협의회에서 발간한 소그룹 리더 훈련 교재 ‘만나고 싶습니다’로 진행된 소그룹 리더 훈련 사역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연牧사는 ‘쉽터’와 ‘Flagship Church’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 주제 강연을 전했다. 일터로서의 교회가 아닌 ‘쉽터’로서의 교회의 개념과 현재 모습, 앞으로의 목표를 설명했다. 또한 김 목사의 목회 철학인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해 참가자들로부터 우려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대회를 준비한 최성남 목사(총회제자훈련부)는 “뉴욕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라 많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알리고 싶었다. 후러싱 제일교회의 목회를 배우고 싶었다”고 올해 모델 교회로 선정한 이유를 말했다. 최 목사는 “후러싱제일교회를 통해 ‘전통의 저력’과 ‘침단 목회’를 배울 수 있었다”고 올해 특징을 설명했다. 내년 대회를 주최할 하와이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흥식 장로는 “행사를 통해 평신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는 모습, 평신도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윤주이 기자>

뉴욕 9.11 테러 현장에 모스크 건립 추진 논란

2001년 이슬람의 9.11 테러로 3천여 명이 숨진 미국 뉴욕 그라운드 제로 바로 옆에 모스크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모스크 건립 예정지는 당시 납치된 여객기 2대의 공격으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부지에서 두 블록 가량 떨어진 곳이다. 모스크 건립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고 있는 뉴욕 이맘 페이잘 압둘 라우프는 무슬림뿐 아니라 비무슬림인 모든 시민들에게도 개방되는 지역 센터 형태의 모스크를 구상 중이라며, 이를 통해 9.11 이후 무슬림들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착 뉴욕 시민들의 반응은 라우프의 희망과는 거

리가 멀다. 대부분 시민들이 이슬람에 대한 여전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모스크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AP통신 등 외신들은 전했다. 특히 최근인 지난 5월 1일 뉴욕 한복판인 타임스스퀘어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미수 사건은 이슬람은 물론 관련 무장단체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경계심을 한층 고조시켜 놓은 상황이다. <5면에 계속 ▶>

‘김준곤 목사님의 뜻을 다음세대에...’

김준곤 목사 기념 사업 설명회 및 추모예배 드려져

故 김준곤 목사의 뜻을 기리고, 고인이 전해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전략을 계승하기 위한 ‘김준곤 목사 기념 사업 설명회’ 및 추모예배가 1일 오후 6시 30분 LA 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사회는 KCCCUSA 대표 김동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희민 목사의 설교, 기념 사업 설명회, 헌신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박희민 목사는 설교에서 “김 목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헌신 하셨던 분이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도시,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데 일하셨던 목사님을 기억하자”고 전했다.

이어 한국 CCC대표 박성민 목사는 기념 사업의 필요성을 전하며 이에 동참할 것



고 김준곤 목사 기념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한국 CCC대표 박성민 목사. ©이태근 기자

을 호소했다. 박 목사는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가장 많은 교회들이 창립된 것은 1975년도다. 김 목사가 엑스폴로 74 사역을 개최해 교회 창립의 밑거름을 만드셨고 80 세계복음화대성회 사역을 개최해 세계선교 성장의 발판을 만드셨다. 성시화운동, 세계선교대회 등 민족 복음화에 앞장 서신 그분의 뜻을 이어

갈 인재 양성이 지금 필요하다”며 “이는 기념 사업을 통해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장학사업과 도서관 건립, 김 목사님 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다음 세대로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이에 여러 후원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며 기념 사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태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파산법	이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성공인 총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d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

[사설]

지금이야말로 한국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천안함사태, 북한정부의 압제가 끝나길 소망하며

천안함 사태원인이 북한에 의한 공격으로 밝혀지면서 한국은 급박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국제적 비난과 함께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다.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이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을 비난했고 단호하게 맞서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동조했다.

북한 잠수정의 무자비한 공격은 지금까지의 한국 대북정책기조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았다.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아래 진행됐던 퍼주기식 햇볕정책은 철저한 반성과 함께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심판대에 서게 됐다.

원칙도 없고 일관성없는 햇볕 정책은 북한 정부의 정치적 생명만 연장시켰고 핵무기 등 위협적인 첨단무기개발에만 도움을 준 꼴이 됐다. 북한은 악명높은 전세계 1위 신앙박해국이다.

북한 기독교인은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그들은 애초부터 굶주리며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먹여살릴 생각이 없었다. 굶어죽어가는 백성에게 도움을 주라고 원조받은 북한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금액을 위협적인 무기개발에 쏟아부었다.

자기 백성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선택하도록 놓아줄 마음도 없다. 지금 북한의 상황은 한국 기독교역사적으로

큰 전환기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악의 무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듯이 북한의 악한 압제자들도 마지막 때가 있다. 북한정부는 현재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누리던 기독교인이 무너질까봐 발버둥치고 있는것에 불과하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북한의 악한 지도자 밑에서 숨죽여야했고 고통당해야 했던 불쌍한 북한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압제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고통을 생각하며, 한 인교회가 하나로 연합해 이 백성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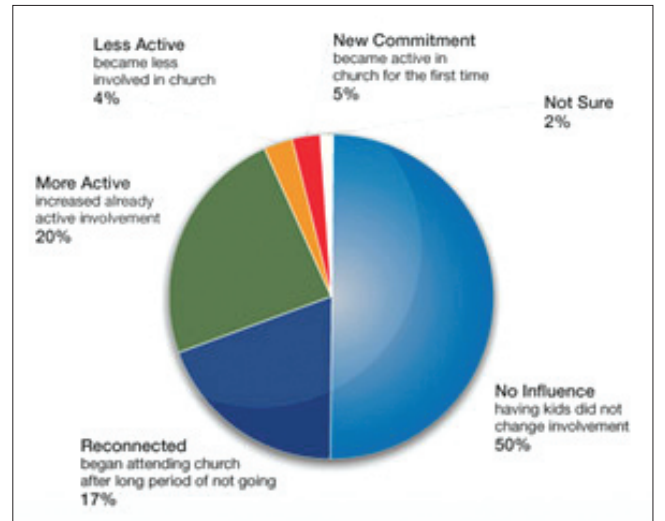
교회 떠나는 청년들, 부모 되면 돌아온다? NO!

美 부모 50%, 자녀 유무 교회 생활에 영향 없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자연히 돌아올 것이라는 편견이 잘못됐음이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바나 리서치 그룹이 미국 전역 18세 이상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자녀의 유무가 교회 활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답했고 기독교인 응답자의 47%도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17%만이 자녀가 생기면서 오랫동안 다니지 않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다고 했으며, 자녀가 생기면서 새롭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바나그룹 데이빗 키나맨 회장은 “교회 사역자들은, 청년들이



미 부모 응답자의 50%가 자녀의 유무가 교회 참여율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아이들 낳고 부모가 되면서 원래 자신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시각이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때로는, 교회를 떠난 그들이 자녀가 생겨 교회에 돌아오길 기다리

면서, 그들의 ‘진짜 사역’이 시작되길 바라는 식의 수동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의 첫 아기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의 때에 신앙을 바로잡아 주고 교회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권나라 기자>

기독교인들은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 같은 논쟁이 뜨겁다.

최근 미국연합감리교단 지보도에 따르면 신앙단체들은 이민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유독 밀레니얼 세대(일명 Y세대, 1970년~2000년대 태어난 세대)들의 이민자 지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뉴욕타임즈와 CBS 뉴스가 공동 주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세에 64세 사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64세 이상 미국인들의 36%가 미국 이민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반면 45세 이하 젊은 세대는 24%만이 이

민 감소에 찬성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도 이 같은 이민자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퓨리서치센터는 현 10대와 20

이라 명명했다. 다양한 민족과 어울리며 학교생활을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운 세대라는 분석이다.

기독교인들도 이 같은 이민법 안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

관의 표현이며, 인권존중, 사회정의,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동일한 인간이라는 가치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다. 보더스링크스는 멕시코 경계선 근처에서 이민 관련 교육

(hate and negativity)”을 보면서, “혼란스럽고 가슴이 아팠다 (Confusing and hurtful)”고 말했다. 그는 “이민을 통해 가족들이 헤어지고, 인권 학대를 겪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압제자들을 섬기고, 이민자들의 종의 되어야 한다는 부르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라틴아메리카 및 스페인어 학과를 졸업한 세라도 씨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며, 우리 지역 교회들도 이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적 치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밀레니얼세대 특징인 ‘

다양성’은 정치권해에서도 드러난다.

캘리포니아 리우드에 위치한 레저렉션연합감리교회 멤버인 벤 심슨(29세)씨는 “기독교인이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부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이민개혁 안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입장은 좀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현명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현존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로 들어올 이민자들의 권익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나라 기자>

美 젊은층, 이민자 지지입장 두드러져

다양성 인정하는 밀레니얼세대 특징, 이민개혁안도 찬성

대는 종교의 다양성에 대해 관대하며, 다문화가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하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의 젊은 이보다 윤리적, 인종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집단”

장이다. 애리조나 투산 보더스링크스(Borders Links)에서 일하는 마지 알트 두엘(25세) 씨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민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이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배운 나의 가치

을 하고 있는 단체다.

알트 두엘 씨는 이민법개혁을 지지하는 한 인권단체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한 청년사역자 글렌 심슨 씨도 이민자를 향한 “미움과 부정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자,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안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권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이력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 비수술척추전문 자생한방병원에서는 365일 토/일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와 함께하는 척추건강 123캠페인 '플러튼 분원'에서 365일 토/일 진료

청소년 자세교정 및 성장·비만 무료상담 받으세요!

자생한방병원 플러튼 분원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대한민국 유일의 척추전문한방병원
- 한국 자생한방병원 의료원장 역임 의료진 상주
- 한국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치료와 동일한 시스템
- 한 양방재활의학전문의 등10명의 의료진에 의한 365일 양한방통합치료

한양방 통합치료 센터

척추관절센터: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수술후유증, 오십견, 퇴행성관절염
특수클리닉: 턱관절장애, 청소년 측만 및 성장, 골프척추관절클리닉
웰빙센터: 비만, 불임, 산전산후관리, 여성질환, 만성피로, 보약원
양방검진센터: 디지털 X-ray, PACS, EMG/NCV, 체지방검사

24시간 전화예약 및 상담 **714-773-7000** 여행자 보험 및 각종보험 취급 - 직장상해 및 교통사고 전문
www.jaseng.co.kr/www.jasengusa.com
1950 Sunnycrest Drive Ste 2000 Fullerton, CA 92835

코헨신학대학교 제22회 졸업식 개최



졸업식 후 단체사진 촬영.

제22회 코헨신학대학교 졸업식이 28일 코헨신학대학교 국제본부(본강당, 토렌스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됐다.

이번 졸업식에는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일본, 미얀마, 파라과이, 필리핀, 아이티, 중국 등 각지에서 졸업생들이 모였으며, 학사 68명, 석사 74명, 박사 20명, 명

정한 성경적인 기독교의 회복이다. 이성과 과학을 의존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와 무신론을 추구했지만 결국 인간에게는 불행만 가져다 주었을 뿐, 영원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로 보이지만 전투적이며 테러와 자살 폭파를 일삼는

기 위해 헌신하는 졸업생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코헨신학대학교 설립총장 강신권 박사는 "이번 22회 졸업식을 갖게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앞으로도 비전 153에 따라 153개국에 코헨신학교를 세워 세계복음화를 이끄는 지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

코헨신학대학교는 게리 코헨 박사와 역사 신학자 로날드 밴더메이 박사, 실천 신학자 윌리엄 케인 박사, 그리고 조직 신학자인 강신권 박사 등이 주축이 되어 보수신앙을 토대로 하여 '정통보수신학과 세계 선교신학(World Vision-153)'을 목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1987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해 설립됐다.

코헨신학대학교는 비전 153을 갖고 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그물에 잡힌 153마리의 물고기처럼, 전 세계 153개국에 분교를 세워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다.

코헨신학대학교는 전 세계 현재 85개국에 분교가 세워져 있다.

코헨신학대학교는 1988년 9월 B.P.C.A로부터 교단 총회 신학교로 인준을 받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1999년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기독교 종합대학교로 정식 승인을 받았으며 WBPC의 세계본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중국, 필리핀, 한국, 남미, 아프리카, 몽골, 인도, 일본 등에 분교가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배움의 사역을 계속하여 153개국에 1530개의 코헨 모체 신학 대학을 수립, 기독교 UN (Christian United Nations)을 설립하는 것을 그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재일 기자)

'아무것도 없이 목회를 해봤기에...'

복음장로교회, 목회자 위한 영적 세미나 개최

복음장로교회(담임 김상복 목사)가 오는 7일 오전 10시 울림픽장로교회에서 이민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강사로는 김상덕 목사가 나선다.



복음장로교회 김상복 목사.

김 목사는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고 준비된 자는 반드시 쓰신다는 확신을 동역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전하며 "세미나는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목회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세미나를 소개했다.

김 목사는 세미나에서 "아무것도 없이 목회를 시작해왔고 28년간의 이민목회 경험을 살려 힘든 이들의 입장에서 동역자들을 격려할 것이다"며 "늘 거룩한 심령을 준비하고 우리가 쓰임 받는 위치로 돌아가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고 강

조했다. 김 목사는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쓰임 받는 위치로 돌아가면 주님이 목회현장에서 감동도 주시고 전할 말씀도 전해주시길 것이다"며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게 목회자들이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교회가 서는 첫단계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주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 하는 마음을 가지며 세미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목사는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제 31대 총회장을 역임했다.

문의 : 562-694-6214 (이태근 기자)

학사, 석사, 박사, 명예박사 총 170명 졸업생 배출

예박사 8명, 총 17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게리 코헨 박사는 '아직 유일하고 진정한 해답인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졸업 연설을 전했다. 코헨 박사는 "오늘날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이슈에 직면해 있다.

첫번째는 인본주의와 무신론, 두번째는 이슬람, 세번째는 진

등 심각한 폭력의 사태만 불러오고 있다. 이 시대 마지막 진정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오직 복음으로 참된 희망을 볼 수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던 것처럼 (막10:45), 온 세상에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

감을 밝혔다.

졸업식은 코헨신학대학교 행정총장 로날드 밴더메이 박사의 기도, 게리 코헨 박사의 학위 수여식, 미셸 강 이사장, 게리 코헨 박사의 특별 장학금 수여식, 김행운 장로의 특별 연주,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총회 총회장 백기환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마쳤다.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후임으로 결정

6월 6일 주일예배에서 교인들에게 공식 발표예정



김승욱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김승욱 목사가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김승욱 목사는 지난 5월 27일 오후 7시 임시당회를 열고 한국 할렐루야교회 원로 김상복 목사의 후임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승

욱 목사는 6월 6일 주일예배 중 본인의 결정을 교인들에게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남가주사랑의교회 장로 3인이 지난 주 경기도 성남시 할렐루야교회를 직접 찾아 교회도 성장하고 있고 할 일도 많은 만큼 청빙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할렐

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남가주사랑의교회측도 할렐루야교회 청빙에 응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청빙의뢰로 인해 김승욱 목사는 기도 중이라고만 밝혀 김 목사의 한국행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한국행 결정을 밝혀 남가주사랑의교회 측의 후임 청빙 건과 관련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재일 기자)

웨스턴 11가 정육점

"고기 먹고 경품도 타세요"

웨스턴 11가 정육점(구 초이스 11가 정육점) 경품대란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30 이상 구입 시 돼지갈비 1팩을 무료로 제공하며, 1등부터 5등까지 경품 추첨도 할 예정이다.

경품은 1등-노트북(note-bookshop.com 제공), 2등-세도나 2박 3일 여행권(아주관광 제공), 3등-간강 보양식 식사권(미락식당 제공), 4등-블랙 앤거스 프라이머 선물권(웨스턴 11가 정육

점 제공), 5등-위스파 1일 입장권(위스파 제공)이다.

20년 전통의 웨스턴 11가 정육점은 미 농무부로부터 최상급 판정을 받은 고기만을 취급하며, 특히 내추럴 비프는 No 항생제, No 성장호르몬, 100% 곡물 섭취한 24개월 미만의 소나 돼지만을 도

축하여 판매하고 있다. 웨스턴 11가 정육점: 323-733-4677

(지재일 기자)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총회 직영 신학대학

2010년 여름계절학기

< B.A. 과정 >

동양철학개론	주간	06/14~06/18
(이민)사회학과 이민 공동체	야간	06/21~07/02
기독교 예배	주간	06/28~07/02
목회사역(영어 강의)	주간	07/19~07/23
자연과학개론	야간	08/02~08/13

< M. Div. 과정 >

성경신학과 은사	주간	06/07~06/11
기독교 교육	야간	06/07~06/18
(요한)계시록	주간	06/21~06/25
상담과 자기성품 이해	주간	06/28~07/02
조직신학 II	주간	07/05~07/09
교차 문화적 교회개척	주간	07/12~07/16
성서, 여성, 여성신학	주간	07/19~07/23
교회와 선교	주간	07/26~07/30
멘토링과 은사개발	야간	08/02~08/13
신약신학	주간	08/09~08/13

- 주간: 오전 9시~오후 5시
- 야간: 저녁 7시 30분~11시

2010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학제

- 학사(BA): 128학점 - 교역학석사(M.Div.): 98학점
- 교회음악 부전공 교역학석사(M.Div. in Church Music): 98학점 = 30학점(교회음악) + 68학점(일반신학과목)
- ESL(Level Test 실시)

접수 및 개강일

- 접수마감일: 2010. 8. 13 (금)
- 개강일: 2010. 8. 30 (월)

구비 서류

- 입학원서, 담임목사 추천서, 재정보증서 (이상 본교양식 웹에서 다운 가능) 최근 명함판 사진(2매),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영문 각 1통)

특전 및 장학금

1. 본교 졸업생들은 해외한인장로회(KPCA)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본교에서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마친 후, 한국의 예장 통합 목사고시를 치를 수 있으며, 본 교단 소속 목회자는 예장 통합 목사로 이명이 가능함.
3. 각종 장학금 혜택이 있음. (교수, 교역자 자녀, 부부학생, 근로, 동문화, 산돌회, 여성교회, 지교회, 지정 장학금 등)
4.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5. 15세와 2세를 위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신학수업 개설.

전임교수 모집

< 지원 자격 >

-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사
- 현재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는 아니지만 채용 후 본 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
- 구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분야 Ph.D. 소지자 중 1명
-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 구비 서류 >

- 이력서- Ph.D. 학위 사본
- 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요약(Abstract)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 신대원(M.Div.)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 교수 추천서와 담임목사 추천서 각 1통
- 신앙고백서(1-2 페이지) -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 접수 마감일 >

2010년 6월 30일 (수)

< 기타 문의 >

이상명 교무처장 Tel. (562) 926-1023 Ext. 302

목사(후보자) 교단 특별교육

교육일정: 2010년 6월 7일(월)~18일(금)

과 목	기 간	시 간
한국교회사	7월~10월	7월 1:30~4:00
		8월 9:00~4:00
		9월 9:00~4:00
교회헌법 및 정치	10월~15월	10월 1:00~4:00
		11월 9:00~4:00
		14월 9:00~4:00
장로교 신조학	15월~18월	15월 9:00~12:00
		15월 1:00~4:00
		16월 9:00~4:00
		17월 9:00~4:00
		18월 9:00~12:00

- 장소: 본교
- 구비서류: 입학원서, 노회장 추천서, 명함판 사진 2매,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목사안수증서 복사본
- 공지사항: (1) 15세와 2세를 위해 통역 제공. (2) 한국교회사 과목을 이미 수강한 이는 성적표 제출로 대체. (3) 장로교회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는 장로교 신조학 면제. -수업료: 전행료 \$100, 과목당 \$400.

영화 이용한 설교로 초신자 정착 돕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꿈이있는 교회'는 미주연회소속 감리교 교회 중 유일하게 영화로 설교하는 교회다. 꿈이있는교회 담임 목사인 김성남 목사는 한국에서 영화 설교로 잘 알려진 꿈이있는교회 하정완 목사의 제자다.



꿈이있는교회 김성남 목사

김 목사는 청년 사역하던 시절 청년들에게 신앙의 경건한 모습은 있으나 참 신앙의 모습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청년들의 신앙성숙과 좀 더 쉬운 복음 전파 방법을 찾다가 영화를 이용한 설교가 좋은 방법임을 깨닫고 이를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문화사역하는 교회의 꿈을 갖고 9년전 도미한 김 목사는 8년전 개척에 나섰다 5년전부터 지금까지 한달에 한번 영화설교를 해오고 있다. 김 목사는 영화설교를 위한 영화 선정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라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한번쯤을 봤을 법한 대중적인 영화를 통해 미처 알

로'를 상영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외모에 개의치 않고 사랑을 하는 괴물 슈렉과 피오나 공주의 이야기 '슈렉'을 상영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꾸미려고도, 숨지도 말고 그대로 나가야

영화설교하는 꿈이있는교회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영화설교 때 상영될 영화를 미리 공지한다. 영화를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영화를 보며 생각한 메시지와 실제 설교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음을 통해 받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상어가 나오는 영화를 준비한 적 있습니다. 예배후 설교 내용을 주제로 한 대화에서 십자가 목결이가 위기 때에 유용하게 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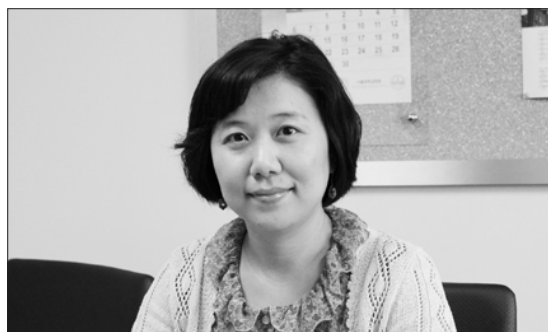
게 되는 부분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 부분에서 은혜도 받고, 미리 본것과 전하고자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영화도 보고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상영할 영화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사도바울의 말씀을 기초해 영화설교한다는 김 목사는 "영화설교하는 교회는 열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이용하면 초신자들의 정착을 더욱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설교를 통해 초신자들과 청년들의 신앙성숙을 기대합니다"고 전했다.

교회 연락처 : 310-986-9986 / 주소 : 1401 W. Whitter Bl, Montebello, CA 90640

(이태근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LA 오피스 애니스 박 소장

LA office 총책임자 애니스 박 소장 부임

대한민국 의료계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2008년 LA 오피스를 개소하고 미주 동포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LA 오피스는 총책임자로 애니스 박 소장을 영입하고 미주 동포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알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애니스 박 소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주요 의료 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았으며, 서울대학교병원 강남 건강검진센터 개원시 국제상담팀을 담당해 국제 의료에 대한 감각을 키웠다.

박 소장은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 간호사들이 상담을 하고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환자가 최상의 맞춤 의료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진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미국 주류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 소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며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대학교병원 LA 오피스는 건강검진을 비롯해 뇌종양, 뇌동맥류, 갑상선암, 폐암, 백내장 수술 및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진료연계가 증가되어 치료 후 환자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현지 의료인들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진료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민영보험 회사 및 메디컬 에이전시와의 협약체결과 공동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유명 대학병원들과의 교류를 통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화: 213-785-8510 (박삼미 기자)

사우스베일로한의대, 가주경영과학대와 졸업식 개최

한의대 172명, 경영대 27명 졸업생 배출

사우스베일로한의과대학교(총장 제이슨 신)는 5월 22일 자매학교인 가주경영과학대학교(총장 데이비드 박)와 함께 제 33회 졸업식을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다.



사우스베일로한의과대학은 자매학교인 가주경영과학대와 함께 지난 22일 졸업식을 개최했다. 사진 사우스베일로한의대 제공

1천여명의 축하객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졸업식에는 특별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밥 호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연설을 하는 등 자리를 빛냈다.

사우스베일로한의과대학교는 석사과정 157명과 박사과정(ACAOM인증)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올바른 의사로서 환자와 지역사회에 의료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엄숙한 서약을 했다.

가주경영과학대학교는 MBA 학위를 포함하여 총 2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별히 이날은 한 국자유연맹 총재이며 전 국회의

원인 박창달 의원에게 '자유민주주의 이념 확산을 위한 정치 및 경제활동 통해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경영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한편 사우스베일로한의과대학의 설립자상에 최은경 씨가 수상했으며 총장상은 석사과정의 사

라 권씨와 박사과정의 존 판에게 그 영예가 주어졌다.

이 밖에도 부총장상과,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학장상, 동문회상, 특별공로상까지 많은 수상자들이 참석자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

(박삼미 기자)

<1면에 이어 >> 무엇보다 이슬람의 테러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그라운드 제로에 모스크를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며 도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9.11 희생자 유

가족들을 비롯한 프로젝트 반대자들은 모스크 건립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 독일문화원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항의하고 있고, 블리츠(Blitz)를 비롯한 보수 색채의 현지 언론들도 "모스크를 세우는 것은 희생자들

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라고 비판 기사를 내고 있다.

물론 찬성하는 쪽도 적지 않다. "어디에든 모스크를 건립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시민들도 있으며, 이슬람을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해서

는 안 되며, 모스크 건립이 오히려 성공적인 화해와 평화 정착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서 이 프로젝트가 통과되리라는 확신은

아직 이르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 작가 사바티나 제임스는 크리스천포스트(CP)에 보면 이메일에서 "무슬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곳은 무고한 생명들이 이슬람의 이름으로 피를 흘린 바로 그 장소"라고

강조하며 프로젝트 무효화를 주장했다. 그는 "단지 무슬림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채 아물지도 않은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에 그야말로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일을 해야 하는가"라며 비판했다. (손현정 기자)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한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 한국 선교 110주년 맞아 국제심포지움 개최

‘부활’을 강조하는 정교회가 ‘죽음’을 보는 시각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생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너무 바쁜 삶 때문에 정작 ‘삶의 목적과 그 끝’은 잊어버리곤 한다.

최근 잇따른 지진과 자살 사건, 천안함 사태 등으로 죽음에 대한 질문이 어렵듯이 떠오르는 이때, ‘부활의 교회’라 불릴만큼 부활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교회가 한국 선교 110주년을 맞아 ‘죽음’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마련했다.

29일 한국정교회 서울대교구 선교회관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움은 서구의 정교회 신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구인가, 적인가? 죽음의 신비에 대한 정교회의 신학’을 주제로 개최됐다.

‘그리스 정교회에서 바라보는 인간 죽음의 본질과 의미’를 발표한 페리 하말리스 박사는 “우리는 죽음을 이해하기를 갈망하지만, 경험해보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첨단 과학의 시대인 지금도 어떠한 논리나 과학도 ‘죽음’이 진정한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고, 그래서 죽음이란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말로 문을 열었다.

하말리스 박사는 정교회 특유의 ‘죽음 신학’을 드러냈다.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시지 않았다

는 것이다. 그는 “정교회 신자들은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죽음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주요한 목적이 아니었고, 죽음의 기원은 원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교회 신학자인 장 끌로드 라르세의 입을 빌어서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자이시지만,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창조자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죽음은 ‘원수’이자 ‘친구’... 하나님의 의도와 달라

이러한 믿음으로 정교회는 죽음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 창조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인간의 ‘죽음’은 뭔가 잘못된 결과이고, 이러한 육체적·정신적 죽음은 인류가 겪는 고난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하말리스 박사는 “이러한 죽음의 비극적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기쁨도 이해할 수 없다”며 “죄를 통해 육체적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죽음과

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가능성에 고매한 비전을 제시한다. 죽음이 ‘비극’이자 ‘고통스러운 형이상학적 재앙’ 또는 ‘인간 운명의 불가사의한 실재’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죄, 갈등이나 고통이 아닌 영원한 삶과 친교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박사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목적과 가능성을 갖고 인간을 만드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관대하신가”라며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가 고유한 개인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친교를 맺기 바라신다”고 전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영원한 삶과 고유한 존재를 의도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원수’가 된다.

죽음은 이처럼 ‘원수’이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굳이 ‘포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박사는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를 잃는 데서 오는 분노와 좌절, 고뇌는 솔직하게 마음껏 표현해도 괜찮다”며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나 친구를 잃는 것을 아무렇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고, 이 과정에서 타락한 현세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죽음은 또한 ‘친구’라고 박사는 덧붙였다. 정교회에서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멀어짐, 교만으로 인한 고립,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물로서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죽음은 현세에서의 이같은 고통을 ‘끝내주기’ 때문이다.

박사는 “하지만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며 “죽음이라는 진정한 친구를 통해 타락한 현세에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본질 바꿔 놓으신 분

물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박사는 “삼위일체로 인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정교회는 죽음을 친구로 본다”며 “그리스도는 죽음의 본질을 바꿔놓으신 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를 때 죽음은 실제로 긍정적이 되고, 부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박사는 “죽음에 대한 정교회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같은 정교회의 견해로 볼 때 자살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육체적 삶을 거부하고 지키지 못한 행위’이자 절망의 표현이며,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긴 것이다.

박사는 “의식적인 자살은 극단적인 저항이자 교만의 행위”라며 “자살을 결심하는 것은 야담의 원죄처럼 스스로의 존재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살은 신성한 자유를 이용해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행위이자 하나님께서 영생과 교감을 위해 내려주신 고유한 인격과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

이므로 교회는 자살을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로 비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섭게 증가하는 자살에 대해 교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사는 “삶에서 고통받고 좌절하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가진 것을 나눠야 한다”며 “자살 또는 다른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비탄에 빠진 사람들도 도와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고, 고립되고 절망하며 부끄러워하고 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사는 “육체적·정신적 죽음에 맞서 우리는 ‘신성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소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죽음, 기술, 안락사에 대한 의학적 결정’, ‘매일의 죽음’과 정교회의 성사생활 및 가족생활, ‘회개, ‘죽음의 기억’ 그리고 부활의 희망’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대웅 기자)

대한성서공회, 아이티에 성경 11,500부 기증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순권 목사)가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아이티에 크레올어 성경 11,500부를 기증한다. 지난 4월 1일 예정 통합 사회봉사부와의 협약식을 가진 대한성서공회는 곧바로 성경 제작에 착수하여 5월 말에 성경 제작을 완수하고 6월 1일 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성경 출고를 기념하는 기증예식을 가졌다.

1일 기증식에서 통합 사회봉사부 부장 김동엽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지진으로 인해 충격과 고통을 받는 아이티인들에게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인 성경을 통해서 아이티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총무는 인사를 통하여 아이티에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교회에 감사의 전하고, 이 성경을 받는 많은 아이티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아이티와 아이티 교회를 재건할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이번 예정 총회와 대한성서

공회의 연합사역을 통해서 성경 제작을 지원하고, 아이티성서공회와 아이티 성경반포에 협력함으로써 성서운동을 통한 협력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티인들에게 보낼 성경은 6월 4일에 부산을 떠나는 선편으로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 항구에 7월 하순 경에 도착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성경이 반포되는 아이티 현장에 사회봉사부 임원들이 참여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대한성서공회가 예정 통합축의 후원으로 아이티로 보내는 크레올어 성경을 컨테이너에 싣는 모습.

주택 차압/퇴거 중단

-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
-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 Foreclosure Intention, Trustee Sale 통보 받은 분
-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숏 세일(Short Sale) 진전이 없어 불안하신 분
- 이미 융자 조정, 숏 세일 시도했으나 실패해서 차압이 임박한 분
- 숏 세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분
- Foreclosure(차압)이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을 기다리고 계신 분
- 세컨 홈, 4 Unit, APT, 상업용 건물, 교회...
- Rent로 살던 집이 숏세일이나 은행에 차압(Foreclosure)이 되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분

융자 조정(후불, 미주 전역)

즉각 차압 중단
즉각 퇴거 중단

- 현재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으나, 크레딧 손상 없이 페이먼트를 낮추고 싶은 분
- 변동 이자 페이먼트(Option Arm)를 내고 있어서 원금이 늘어나 불안한 분, 30년 고정 프로그램으로 재융자 하고 싶으신 분(NO Tax, Bad Credit OK)
- Obama 법에 의해, 융자 원금 삭감 가능 (예: 2차 론의 경우, 18만불에서 2만불만 내고 16만불 탕감 받음, 사무실 방문시 모든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NO...NO Short Sale : 저희는 절대로 숏 세일을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Paul Lee (폴리)
213-248-9297

365일 매일 3회 집회가 있는 L.A 대한민국 기도원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신유의 은사로 각종 암병, 중풍, 우울증, 신경통, 당뇨가 치료되며 사명자들은 사명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됩니다. 자녀,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 : 새벽 5시 30분 / 오전 11시, 저녁 7시

예배장소 : 2716 Ellendale Pl., LA, 90007

* 차량픽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323-734-4599 / 213-725-3007

* 각 분야 봉사자 및 악기 연주자, 사명자들은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 구인모집 ◆◆◆

학교 행정업무 보실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 및 컴퓨터 능한자 (40세 미만 환영합니다)

개성공단도 위험한데... 평양과기대의 앞날은

남북관계 경색 속 아직도 개교 일정 미정 상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만행으로 밝혀진 이후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되고 있는 가운데,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양과기대는 잘 알려진 것처럼 건립 추진측이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들을 돌며 전방위적인 모금 활동으로 건립 자금을 마련, 지난해 9월 준공식을 마쳤으나 올 4월로 예정된 개교는 미뤄졌고 향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평양과기대 창립멤버 중 한 사람인 말씀 길리스 박사가 "이번 달 중순부터 대학생 150명과 대학원생 60여명이 수업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는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간 긴장상황 때문에 정확한 개교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여 남북간 관계가 변수임을 암시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사실상 남북교류가 중단됨에 따라, 교수진 등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다수 들어가야 하는 평양과기대 사정상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평양과기대는 순수 학문연구를 표방하며 한·미 개신교 신자들의 도움으로 400여명으로 추정되는 건설 비용으로 준공식을 마쳤으나, 북한 당국이 약속을 어기고 교육 커리큘럼 및 교수임용 권한을 50% 이상 요구하면서 개교가 미뤄지고 있다.

평양과기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측에서는 대학 건설에 필요한 땅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교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은 학교 건설과 필요한 설비, 교직원 구성 등을 맡기로 했다"며 "특히 과학자, 교수, 기술전문인 등 해외

전문인력을 초빙하기로 하고 대학의 교수인사권과 운영권을 위임했고, 대학 건설을 위한 계약권도 재단과 설립총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 영생탑', '주체사상 연구센터' 등 교계 우려 낳아

이러한 가운데 평양과기대 내 '김일성 영생탑'이 세워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 비용을 마련한 한국교회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생탑의 존재는 지난해 준공식 참석 인사들에 의해 직접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교 내에 '주체사상 연구센터'까지 들어선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영생탑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지시로 북한 전역에 세



평양과학기술대학

워진 김일성 '우상화' 조형물이다. 평양과기대 내 세워진 영생탑에는 세로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조각돼 있으며, 아랫 부분에는 김일성화(花)가 조각돼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사망일(7월 8일)이나 생일(4월 15일)에 각 동리마다 세워진 영생탑에서 현화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학교 설립을 주도한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공동이사장 관선희·김삼환 목사)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 체제를 먼저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연변과기대 안에 도 공산당원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흑백으로 가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

혔다. 그는 "(영생탑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학교 허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영생탑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염려와 실망에 대해서는 "실망하셔야 하고, 현실을 아셔야 한다"며 "저희가 돈을 내서 학교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최일도 목사

최일도 목사가 지난 22년 간의 다일공동체 사역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한국목회상담협회가 5월 29일 서울 병천동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한 연례학술대회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했다.

'영성지도와 목회'를 주제로 강연한 최 목사는 먼저 "신학생 시절부터 영성에 관심이 있었다. 어찌보면 지난 30년 동안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계속 살아온

"신학생이 대형교회만 꿈꾸면 한국교회 미래 없다"

셈"이라며 "요즘엔 일상이 곧 영성생활이고 영성생활이 곧 일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폈다. 그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위로부터의 영성만을 추구한다면 서 자신의 다일공동체 사역은 철저히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민들과 함께 시작했다"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성생활"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모교인 서울광장동 장로회신대학교에서의 일화를 예로 들며 오늘날 신학생들의 영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에서 강의하면서 '과연 이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이나 할까'하는 의문이 든다. 과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던 신학생들도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그것을

의 영성이 모두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의 영성이 있었다. 그러면서 불만이 많이 생겼다"며 "왜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밖으로 나와 희생을 할까 하며 마리아처럼 주님 발아래에만 있는 목회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그러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점점 주님 발아래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만약 마르다의 영성만으로 살았

다면 다 탈진해버려 지금의 다일공동체는 없었을 것이다. 자연치유센터와 영성생활수련원을 만들어, 청량리라는 현장과 산속의 한적함을 오가면서 균형잡힌 영성생활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권명수 박사(한신대)가 '영성지도: 영적 여정의 동반'을 제목으로 강연했고 '영성지도와 실제: 말씀묵상지도' '영성지도와 실제: 그리스도 요법' '영성지도의 실제: 기도치유' 등의 주제로 분과별 모임도 열렸다.

(김진영 기자)

최일도 목사 '영성지도와 목회' 주제로 강연

역설했다. "그 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주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영성도 함께 실천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나 자신과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목사는 "다일공동체의 첫 출발은 한적한 산도 깊은 계곡도 아니었다. 도시 한복판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빈

최 목사는 "밥퍼 사역을 하면서 노숙자들이 식사 때마다 1백원을 냈었다.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게 1백만원을 모아 장신대에 헌금했다. 자신들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볼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해달라는 노숙자들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신대는 그 헌금을 건물에 짓는 데 사용했다. 가끔 그 건물에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기도 한다"며 "최첨단 건물

기대하기란 더욱 힘들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최 목사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겠다는 생각보다 대형교회 담임이 되려 하는 신학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사랑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아닌 몇 만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선망의 대상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미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 목사는 또 다일공동체 사역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어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홍 목사

천안함 후 위태한 북한, 개방과 복음화로 이어지길

NIM 임현석 목사 선교편지에서 이번 사태 분석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륙선교회(NIM)의 대표 임현석 목사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개방과 복음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목사는 최근 보낸 선교편지에서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대해 "그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불안한 외교 문제에 대해 중국의 안정된 지지를 확인하고 김정은 후계 문제에 협력을 약속 받으며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투자 등을 이끌어 내고자 했을 것"이라 봤다.

그러나 "이 방문이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혈맹관계를 확인해 준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결과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그 동안의 금기를 깨고 "북한 내정과 외교상의 문제 등에 대해 사전 의사소통을 하자"고 제안했으며,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개혁개방 건설의 경험을 소개하고 싶다"며 충고에 가까운 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임 목사는 "개혁 개방"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싫어하는 김정일이 이 말 때문인지 중국 방

문의 대미를 장식하는 일정 없이 하루 일찍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추측했다.

임 목사는 "현재 천안함 사태는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통해 사건의 협조를 요청한 이후, 중국의 지지조차 흔들리는, 더욱 더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5월 26일자 사설에서 북한에 대해 외부의혹에 진지하게 증거제시를 하고, 혹시 북한의 소행이라면 솔직히 인정하라고까지 촉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외적 지형이 불리해짐에 따라 북한은 사태 초기의 자신만만한 태도에서 불안한 태도로 변화했다. 최근 북한은 내부적으로 공민증을 전자식으로 발급해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임 목사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강화하는 것은 권력의 불안함의 표현이며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탈북자들을 통해 듣게 되는 북한 내부 소식은 만연한 지도층의 부패와 지도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 급속도로 퍼지는 불륜과 자본주의 문화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한마디로 점점 심각하게 병들어 가는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모습을 보며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이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살릴 수 있는가? 사망의 늪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그들을 위해 생명줄을 던져 줄 복음의 사명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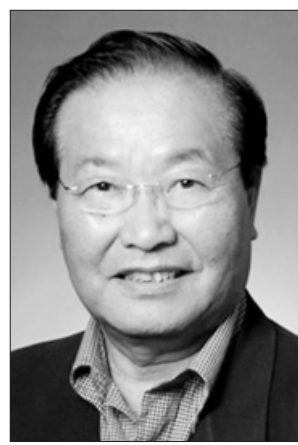
끝으로 그는 북한 선교를 위한 5월의 기도제목으로 "천안함 사태 후 악화되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방으로 이어지길", "이로 인해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길", "다시금 증가하는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이 확대되도록", "지하교회와 수용소에 있는 사 람들을 보호해 주시길" 등을 꼽았다.

매달 NIM이 주최하는 북한구원을 위한 연합기도회는 5월 31일 오후 8시 시카고한인교회에서 열렸다.

<김준형 기자>

실력과 겸손으로 미국 신학계에 서라

미주리 캔사스시티의 세인트폴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를 맡고 있는 전영호 목사가 최근 시카고를 방문해 후배 한인 교수와 유학생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했다. 미연합감리교회 산하 신학교인 세인트폴신학교는 450명 학생이 공부 중이며 이 중 한인인 6명이다.



미국 신학교의 한인 교수 1세대로 꼽히는 전영호 목사. 그가 시카고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했다.

인 학생은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왔는데 당신이 뭔데 날 평가하나"며 교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피웠다. 그 난리

하기 위해 독일로 떠나자 많은 학생들이 전 교수를 다시 강단으로 데려 오라며 총장에게 탄원했는데 그 일에 앞장선 이가 바로 그 흑인 학생이었다. 이 사건은 평생 그의 이력을 따라 다니면서 소수자로서 미국 신학교에 있는 한인 전영호 교수를 만들어 갔다.

그는 그동안 흑인을 비롯한 각종 소수자들이 미국의 인종 차별 문제와 싸우며 길을 열어 왔고 한인들도 그 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동양인이란 미국 신학교 안에서도 임지가 적다고 한다. 다행인 것은 기독교의 관심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가운데 한국은 아시아권 최대의 기독교 국가이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미국 교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기에 한인 교수들의 역할도 점차 증대되고 있던 사실이다.

세인트폴신학교 <전영호 교수> 시카고 방문

멤버로 활동해 왔다.

그는 1972년부터 강사 자격으로 미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해 1983년부터는 세인트폴신학교에서 교수 자격으로 후학을 양성해 온, 한인 교수 1세대다. 그 당시만 해도 인종 차별이 뚜렷하게 존재했다고 그는 회고했다. 동양인이 교수로 왔다는 소식이 지역 언론들까지 찾아와서 "당신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알고 있다"면서 유교와 불교에 관해 물었다. 그가 "난 기독교를 가르친다"고 했더니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 교수로부터 성경개론 과목에서 좋지 않은 학점을 받은 한 흑

에 주변의 백인 교수들과 학생들까지 몰려 들었다. 전 교수는 차분히 "자네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도 목사지만 내가 자네보다 성경을 더 모를 수 있다고 인정하네. 그러나 교재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네는 이 부분을 가르쳐 판단하고 있네"라고 차분히 설교했다. 그 흑인 학생은 머쓱한 태도로 돌아갔고 백인 교수들은 전 교수를 격려하며 오히려 저 학생을 퇴학 처분하도록 조치하자고 했다. 전 교수는 "그럴 수 없다"고 그 학생을 변호했고 이 사건은 그렇게 무마됐다. 이후 전 교수가 총장의 만류까지 뿌리치고 더 공부

전 교수는 후배 한인 교수들에게 "미국을 가르칠만한 실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라고 전제한 후 "동료 교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중시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신학교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인 교수들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한인들이 훌륭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경쟁심을 갖거나, 오히려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 좋은 인간관계는 남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시카고 어린이, 아이티 어린이 위해 노래

아이티 지진 고아들을 위한 자선음악회, 동요와 가곡의 밤

시카고 한인 어린이들이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티 어린이들을 위해 노래했다. 5월 28일 헬로쉽교회에서 열린 "아이티 지진 고아들을 위한 자선음악회, 동요와 가곡의 밤"에서다.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한인본부 주최로 열린 이 음악회에는 지난 2010 시카고동요대회에서 임상

한 12명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청중들에게 아이티 어린이 사랑에 동참해 주길 요청했다.

이날 노래한 강준(9살), 김나연(4살), 김지혜(9살), 김혜은(7살), 심서린(8살), 이예원(11살), 이예린(14살), 임해인(8살), 조단우(10살), 최예진(7살), 홍수연(11살), 김재우(11살) 어린이는 미주한인본부의 홍보

대사다.

한인 어린이들의 아이티 어린이 돕기에 힘을 모으기 위해 소프라노 김인선, 라온실, 메조 소프라노 신혜정, 홍선희, 테너 진철민, 바리톤 김기봉, 피아노 윤세라, 정지숙 등 전문 음악인들도 함께 성가곡과 가곡 연주를 펼쳐 냈다.

음악회 중 사역보고 시간에 보고



시카고 어린이들이 아이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노래하고 있다.

한 정승호 선교국장에 따르면,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아이티 지진 후 5백만불을 긴급 구호를 위해 사용

14일, 19일 두차례 걸쳐 의료팀을 추가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 국장은 "최근 아이티 의료 구호시에 아이티 고아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의 고아들은 하루 한끼로 연명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매월 30불을 정기후원해 주시면 그 어린이들이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게 된다"며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후원 문의) 703-473-4696, 847-296-4555

<김준형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OPEN 7 DAYS A WEEK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함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그레이스마운트교회
담임: 김기환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3550 W. 6th St, LA, CA 90020
T. (213) 448-9999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을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중등부)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동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아(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아)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동양선교회
임동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전 8:30 5부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ic.org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 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우터튼 47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서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화-일)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찬양경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심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 F.(714)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아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성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화-일)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1:00 (토) 오전 7:00
셀모리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 (714) 990-1008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청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승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종보기도 오후 1:00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213) 739-0515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아)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쉽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스케줄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8: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예배 오후 7:45
점오 12:30 분담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하나로교회
담임: 박문환 목사
1부예배 오전 8:40 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4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2:0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 (909) 464-9210 / F. (909) 548-4536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용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침례사후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위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센터 확장 요청 부결이 종교차별?



문제가 되고 있는 알파레타 시의 이슬람 센터©AJC

알파레타 시의회, 교통체증 이유로 이슬람 센터 확장안 부결

알파레타시 의회에서 이슬람 센터 확장 요청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이슬람 측은 '종교차별'이라며, 조지아주와 연방정부에 이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AJC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1998년, 풀톤 카운티는 이슬람 회중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집에서 모이는 것을 허용했고, 몇 년이 지난 2004년 이슬람 센터 측은 늘어나는 회중을 이끄는 이맘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집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풀톤 카운티는 주변 거주민들이 겪는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센터를 확장하지 않는 조건'을 붙여 허가한 바 있다.

이번에 부결된 안은 현재 2,500SF 공간을 돌려 나눠 하나는 1,900SF의 다목적 빌딩으로 또 다른 하나는 1,200SF 공간으로 재건

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4에이커 공간에 이같은 건물을 짓는 것은 맞지 않고, 이로 인해 이슬람 센터가 위치한 러커 로드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회의가 있던 월요일 밤, 공청회 장소에는 150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참가해 논쟁에 귀를 기울였다. 공청회 이후 이슬람 센터 측 더그 딜라드 변호사는 "알파레타 시

가 이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건축은 허용한 적이 있다"면서 "이들은 일관성이 없다. 자신이 가진 종교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거주자인 리차드 니토 씨는 "이슬람 센터 측은 부족한 공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전에 동의했던 바를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신축에 대한 동의의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슬람 센터 측의 다른 변호사인 페트 헨드릭스 씨는 "풀톤 카운티에 의해 약속된 조건은 일관적인 의미에서 건축에 관한 것은 아니다. 워싱턴 센터는 이에 대해 동의도 거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동의'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 센터에는 등록된 약 6백여명의 회중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약 25명만이 하루 5번의 기도시간과 금요일을 제외한 매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박현희 기자>

왕따 금지법안 SB 250, 조지아서 통과

메사추세츠, 뉴욕 이어 3번째, 안전한 학교 만들겠다



조지아주에서 왕따 금지 법안이 상정돼 지난 27일(목) 소니 퍼듀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최근 메사추세츠와 뉴욕 주에서 차례로 통과된 바 있는 왕따 금지 법안은 왕따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 및 피해사태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 교회의 문제로 취급되던 왕따 문제에 대한 비책을 국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태세다.

마이크 제이콥스 상원의원에 의해 지지돼 상정된 법안 'SB 250'은 기존의 주 법안에서 명예훼손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으로서 '육체적 폭력을 포함해 의도적으로 한 개인을 깎아 내리는 글, 가상의 위협'을 포함한다. 또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도 포

함했다. 마이크 제이콥스의원에 의해 지지된 이 법안은 양당의 넓은 지지를 받으며 최종 상원을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9년 디캡카운티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힘 헤라라(11세)가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통해 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고, 지난 3월 상원에 상정됐다.

ADL(Anti-Defamation League) 동남부지역 디렉터인 빌 니겝 씨는 "제이콥스 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으로 조지아 지역 아이들의 배움의 장이 더욱 안전해 졌다는 데 박수를 보낸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현장의 지지자로서, 우리는 교사들과 학교 행정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나라 기자>

도미니카공화국 선교도 연합으로!

첫 번째 훈련 50여명 참여, 캐나다에서도 참여키로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뉴욕, 뉴저지 등 교회 연합으로 진행될 도미니카공화국 선교 훈련이 5월 30일 오후 7시 30분 뉴욕중앙장로교회(담임 김혜택 목사)에서 있었다.

이날 도미니카공화국 선교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50여명으로, 캐나다 지역에서도 10여명 참여할 예

정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선교팀은 북미원주민선교팀과 같이 찬양과 기도, 말씀 시간을 가진 후 팀별 훈련부터 나뉘었다. 북미원주민선교 훈련을 위해서는 300여명이 이날 참여했다.

한편 이날은 이상관 목사(광주 사랑의 빛 교회)가 설교를 전했다. 이상관 목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세미나'를 목회자 및 평신도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으며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뉴욕중앙장로교회에서 뉴욕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마친 바 있다. 이날 이상관 목사는 참



북미원주민·도미니카공화국 선교 훈련에서 이상관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가자들에게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당부했다. 이 목사는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오상아 기자>

워싱턴 신학교 제 26회 졸업식

< 석사 1명 박사 2명 배출 >

워싱턴신학교(학장 김택용 목사) 제 26회 졸업식이 지난 5월 22일 워싱턴한인장로교회(담임 박성일 목사)에서 열렸다.

졸업식은 오경일 박사(신학교 이사)의 사회로, 권오윤 박사(실천신학 교수)의 기도, 김성도 목사(워

싱턴 교협 회장)의 설교, 김택용 학장의 학위 수여, 이병완 목사의 축사, 차용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도 목사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첫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켜야 하며, 둘째, 그 생명의 말씀을 열방에 전해야 하고, 셋째,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졸업생들이 이런 일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학위 수여를 받은 졸업생

은 오영란 전도사(기독교 교육학 석사), 정난형 전도사(기독교 교육학 박사), 안상도 목사(목회학 박사) 등 3명이다.

1983년 개교한 워싱턴신학교는 I-20 Form을 발급하고 있으며 한국 유학생들이 다수 수학과 있다. 금년도 가을 학기는 8월 30일에 시작된다.

문의 : 703-927-1267 <조요한 기자>



워싱턴 신학교 제 26회 졸업식이 워싱턴한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여드름 완치!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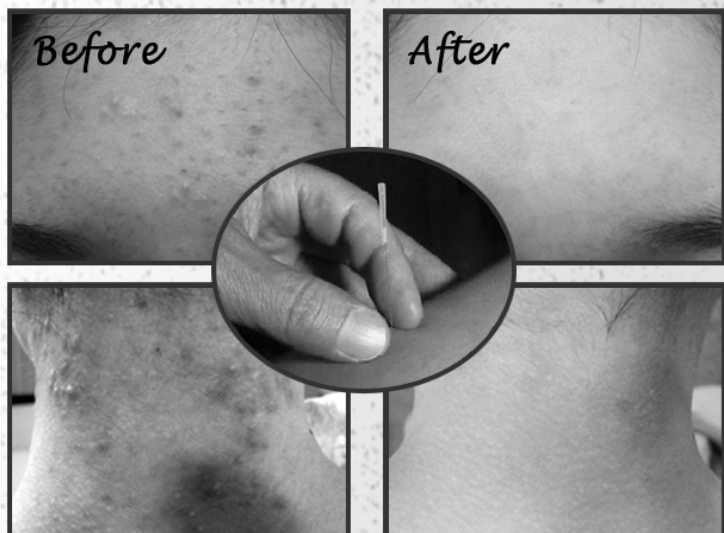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Tel. 213-380-0835



가수 자두, 5년전 하나님 만남 진솔한 고백 전해



상항제일장로교회(박용준 목사)는 28일에 신앙심깊은 크리스천 연예인 가수 자두를 초청해 찬양간증집회를 드렸다.

크리스천 연예인 가수 자두가 샌프란시스코를 찾았다. 상항제일장로교회(박용준 목사)는 5월 28일에 신앙심 깊은 크리스천 연예인 가수 자두를 초청해 찬양간증집회를 드렸다.

자두는 찬양집회를 시작하면서 “어제와서 시차적응이 아직 안된 상황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쁨과 새 힘을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CCM가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고백

대로 선포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심을 느꼈다”며 “어른신들이 많아서 찬

송을 많이 준비했다”며 특유의 개성 있고 힘있는 목소리로 찬양했다.

사춘기때 큰 방향의 시절, 연예인 시절 지독한 우울증 시달려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 중”이라는 그는 그간 진행돼 있던 복잡한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연예인 기독교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린 것인데 기도하는 곳에 머물면서 주님 일에 바로 서게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일에 대해 진솔한 간증을 전하며, “사춘기때 큰 방향의 시대가 있었다. 내 삶은 바닥까지 갔었고, 교만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영망정창이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수 캐스팅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캐스팅 됐다. 왜 가수가 됐는지 나중에 서야 알았다. 남들처럼 연습생시절도 없이 갑자기 가수가 돼서 철없이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했다. 자두는 한때,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담도 얘기했다. “방송출

연하면서 어려움, 심각한 우울증으로 숨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밝고 명랑한 자두와 내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았다. 밖의 이미지와 내 우울기질은 큰 부딪침이었다”고 말했다.

5년전 하나님 만났다. 너무 힘든 일 앞에 오히려 직면해 맞서게 해

그는 5년 전 하나님을 만났다. 어느 것으로 해도 채우려 해도 허무한 상태였지만, 막상 교회로 돌아올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중에서야 만났다는 그는 “저는 너무 죄인 중 죄인”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았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아셨다”고 감격하며 “내 특이한 성향을 맞추셔서 이렇게 멋지고 재미있게 나를 이루 만져주셨다. 너무 신기하고 감탄스럽다”고 말했다.

인간사회의 복잡함, 사람들로부터 사기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면서 ‘용서’라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알게됐다 그는 “하나님

의 공의와 정의의 계단을 난후에야 비로써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나

왔다”고 고백했다.

자두는 “힘든 상황에 막히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일어난 안좋은 일들을 회개할길 원했는데 오히려 내 코앞에 그런 일들과 직면하게 됐다”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연예인, 밖으로는 강해보이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자존감 낮아

“연예인들은 밖으로 강해보이지만 안으로는 누구보다 자존감이 낮고 언제나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며 “신기하게 지금 모이는 기독교 연예인 공동체 멤버들은 교회에서 너무 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예인 중에 크리스천이 정말 많다. 연예계에 몸담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서 자란 친구가 많다”며 “이들에게 대화 소통공간과 에너지와 끼를 발산할 공간으로 교회만한 데가 없다. 그러다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인 연예인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임형진 기자)

‘우울과 방향과 교만의 끝에서.. 하나님 만났다’

기성교회 변화! 교회 리더십 화합할 수 있어야

2010 시애틀 형제교회 컨퍼런스

시애틀 형제교회의 변화 비결을 나누는 2010 형제 컨퍼런스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함께’라는 주제로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간의 관계, 교회의 본질 회복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예전부터 한인교회는 부모와 함께 교회에 다니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현상(2세대)의 목회자 지망 기피, 젊은 층의 빠른 유출, 그에 따른 고령화와 등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도전 앞에 직면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교회를 무력화 시키고 분열케 만드는 원인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으로 밝혀져 교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다.

형제교회의 이번 컨퍼런스는 교회의 위기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필요와 맞물려 열린 것이라 강의를 듣는 참석자들의 눈빛은 더욱 빛났다.

시애틀 형제교회의 변화는 10년 전 37세의 젊은 목회자, 그것도 본 교회 고등부에 출석했던 권 준 목사를 청빙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권 목사는 부임 직후 예배의 회복과 교회 본질 회복을 추구하며 지속적인 교회 갱신을 이루나갔다. 특히 교회 본질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담임 목사와 교회 리더십과의 동역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교회 기반을 닦았다.

교회의 변화에는 예배의 부흥과 비전을 향한 선포 뿐 아니라 양을 사랑하는 목사의 심정 그 중심에 있었다. 예배의 회복과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경험한 성도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젊은 층과 2세를 배려한 예배진행으로 교회를 떠났던 이들은 발길을 돌려 다시 교회를 찾았다. 형제교회의 변화는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열망과 함께 교회 리더십의 양보와 희생, 화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0 시애틀 형제교회 컨퍼런스에서 강의하는 권 준 목사

권 목사는 형제교회가 추구한 △하늘을 향해 열린 공동체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를 설명하며 교회가 중요시할 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 순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배), 서로를 향한 사랑(교제),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순서는 절대로 뒤바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때, 교회를 움직이는 힘도 예배”라며 “기성교회의 변화는 예배의 부흥이나 감격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제와 전도 역시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 한 것”이라며 예배의 중요성의 거듭 강조했다.

권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교회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교회 내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화합할 것을 당부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상대방과 통(通)하고 싶다면 경청하라

경청과 쿠션의 저자 조신영 작가가 말하는 지혜



베스트셀러 경청과 쿠션의 저자 조신영 작가

본국 게스트에서 리서치 한 것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취업대란 한국의 취업심사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성적표나 언어구사력이 아니었다.

심사관들은 사람을 등용할 때 의사소통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그것은 현대인들은 소통의 부재 속에 살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소통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상호간의 대화 속에 공감하는 법을 담은 경청과, 참된 행복과 안식을 주제로 한 쿠션이란 책이 일약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것 역시 사람들이 관계 형성과 마음의 평안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는 5월 28일 부터 양일간 베스트셀러 경청과 쿠션의 저자 조신영 작가를 초청 인생 업그레이드 세미나를 열었다. 조 작가는 29일 “마음을 얻는 지혜”란 제목의 강의에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하고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청의 방법으로 △비워라 △인정하라 △끼어들지 말라 △감정을 살피라 △반응을 보여라 등의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조 작가는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듯이 편협 된 생각이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가운데

상대방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명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이 대화 역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연주와 같다. 내 마음의 공명통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고, 공명통의 폭이 깊고 넓을수록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라며 상대방의 소리에 마음의 공간을 넓히라고 조언했다.

한편 그는 “크리스천들은 주위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권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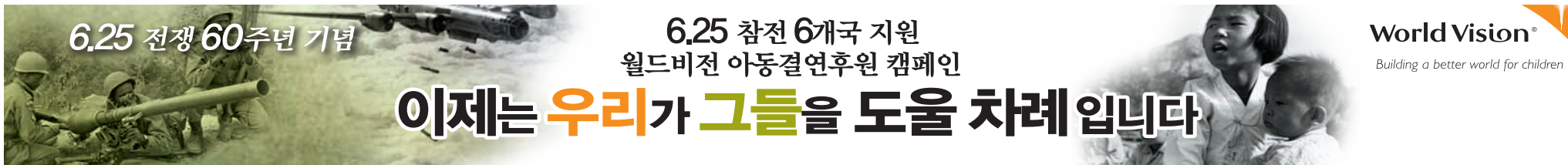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6.25 전쟁 60주년 기념

6.25 참전 6개국 지원
월드비전 아동결연후원 캠페인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World Vision®

Building a better world for children

월드비전, 6.25 특별 캠페인 펼쳐 참전 16개국 중 6개국 대상 아동결연후원

60은 한국인에게 특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60번째 맞이 하는 생일을 '환갑(還甲)' 혹은 '회갑(回甲)'이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축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해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세계 최대 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남한에서 발생한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은 수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온 국토가 잿더미로 변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밀고 내려 오는 북한 인민군의 공격에 의해 낙동강까지 떠밀렸던 한국은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려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엔이 창설된 후 처음으로 내린 참전 결의에 따라, 전투 부대를 파견한 유엔 참전 16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조건없이 우리를 찾아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이쁨모를 산하에 자신들의 피와 살을 물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국기들이 도열해 있다.

민주화 그리고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정상에 오르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유엔 참전국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풍요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6.25 전쟁 당시, 자국 젊은이들의 소중한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 주었던 UN참전 국가 가운데는 아직 가난의 빙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남 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인디아, 필리핀, 태국, 이들 6개 국가는 현재 월드비전이 지역 개발 사업과 구호 활동을 통해 현지 아동들을 도와야 할 정도로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월드비전에서는 유엔 참전 16개 나라 중, 아직도 가난에서 허덕이는 6개국 아동들을 지정해서 돕는 특별 캠페인을 6월과 7월, 두 달간 펼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연 후원은 그 곳 아이들에게 60년 전 우리가 맛보았던 희망의 빛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한국군 참전 용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에티오피아 내 6.25 참전 용사 마을 입구



유엔군 병사가 전쟁고아를 돌봐주고 있다. ▶

유엔군 참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

6.25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유엔 기본정신에 입각한 사상 최초의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안전보장' 원칙을 점검하는 시금석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평화의 파괴자'에 맞선 국제 기구의 집단적 행동으로, 평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세계 대전의 포성이 멎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와 자유의 위협에 대해 세계는 "유엔 현장에 입각해 이를 집단 행동으로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엔군은 한반도의 남단 일각마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참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존망의 기로에 선 한국을 기사화시키고, 나아가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유엔의 지원 결의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UN의 깃발 아래 결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후 전 세계 자유민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데 좋은 교훈이 되었다.



▲UN 참전 결의에 따라 한국전에 참전한 호주 군인이 국기를 들고 있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남아공 인도 필리핀 태국



유엔 참전국 주요 일지

- 1950년
 - 6.25 북한군 남침
 - 6.26 유엔 안보리 1차 결의안 가결 (침공 행위 중단, 38도선 이북 철수, 대북 지원 자제 요청)
 - 6.27 미군 해공군 참전
 - 6.28 유엔 안보리 2차 결의안 가결(한국에 군사 원조 제공)
 - 7.01 미국 지상군 참전
 - 7.07 유엔 안보리 유엔군 사령부 창설 결의
 - 9.20 필리핀 지상군 참전
 - 11.07 태국 지상군, 해군 참전
 - 11.16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 참전
 - 11.20 인도 야전 병원 파견
- 1951년
 - 5.06 에티오피아 지상군 참전
 - 5.08 콜롬비아 지상군 해군 참전
 - 7.10 휴전 회담 개시
 - 7.17 휴전 조인
- 1953년
 -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값을 차례입니다!"



60년 전, 6.25 전쟁은 고통없는 기억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잃고 전장을 떠돌던 저는 전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제게 다가온 한 미군 병사는 제 양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그 분의 보살핌은 미국의희 상원의원이라는 오늘의 성공적인 저의 모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한국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만일 60년 전, 아무 조건없이 극동의 작은 신생 독립국을 찾아와, 아낌없이 자신들의 피와 살을 내어 준 유엔 16개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21세기 지구촌의 또 다른 성공신화를 기대하는 민족으로서, 60년 전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크게 될 신화는 그 빛을 잃을 것입니다. 육이오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월드비전이 마련한 6.25 참전 6개국 아동 돕기 결연 캠페인은 이런 의미에서 너무 귀한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값을 차례입니다." 이번 캠페인에 여러분의 동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드비전 후원자, 신호범 WA 주 상원의원

월드비전은 ?

월드비전은 195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국에서 긴급 구호 및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11.4%를 행정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투명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사업으로 지구촌 아동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엔 참전 6개국 참전 규모 및 인명 피해 현황

	참전규모			인명 손실				
	참전연인원	육군	해군	공군	사망	부상	실종	포로
필리핀	7,420	보병 1 대대 병력:1,496			112	229	16	41
태국	6,326	보병 1 여단 병력:5,455	프리깃함 7 척	수송기편대:1	129	1,139	5	-
콜롬비아	5,100	보병 1 대대 병력:1,068	프리깃함 1 척		163	448	-	28
에티오피아	3,518	보병 1 대대 병력:1,271			121	536	-	-
남아프리카 공화국	826			전투비행대대	34	-	-	9
인도	627	60 여전 병원			-	-	-	-

6.25 참전 6개국 아동결연후원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교회나 기업체는 한국어 안내 전화 1-866-육이오-1950 혹은 www.wvkor.org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생소원!!!

미국대륙 횡단 여행

오는 7월16일 20박21일 여정으로 로스앤젤레스 출발!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3,000달러.

LA - 레이카호 - 솔트레이크시티 -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 - 옐로스톤 국립공원 - 데블스타워 국립모뉴먼트 - 러시모어 국립모뉴먼트 - 크레이지호스 - 배들랜드 국립공원 - 시카고 - 나이아가라 폭포 - 허버드데 - MT - 뉴욕 - 워싱턴DC - 루레이동굴 - 세인트루이스 -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 덴버 - 신의 정원 - 로얄고지 - 블랙캐년 - 아치스 국립모뉴먼트 - 캐년랜드 국립공원 - 모뉴먼트밸리 - 레이크 파월(크루즈) - 플래그스태프 - 피닉스 - 치리카후아 국립모뉴먼트 - 톰스톤 - 사구아로 선인장 국립공원 - 알고도네스 모래사막지대 - 데저트 핫스프링스 - LA

- ★ 7월16일 LA를 출발, 뉴욕을 최종착지로 하는 9박10일 여정의 서-동 대륙횡단 편도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1,500달러.
- ★ 7월25일 뉴욕을 출발, LA를 최종착지로 하는 12박 13일의 동-서 대륙횡단 편도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1,800달러.

관광 가이드에게 하루 10달러씩 통상 내게 되는 팁 없음!
 대륙횡단 여행에 17차례나 다녀온 여행 전문가이자 LA 여행클럽의 간사 지미 김씨가 이번 대륙횡단 여행의 인솔자로 나서게 됩니다!

28주 40도시 17국립공원 50명소 1만 Mile의 대장정.
전 일정 Bus로 이동하는 미국식 배낭여행.
 여행 동호회 'LA 여행클럽'이 이지 LA투어와 손잡고 올여름 대륙횡단여행에 나섭니다.

문의:(213) 388-0777 또는 이메일 latravelclub@hotmail.com
 (EZ LA 투어 문의전화는 미 서부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 4055 Wilshire Blvd, #LLA3, Los Angeles, CA 90010 USA

최봉수 칼럼



최봉수 목사
슈가르프한인교회

5월 31일은 메모리얼데이였습니다. 데코레이션데이 (Decoration Day)라고도 불리는 메모리얼데이는 1865년 5월 30일 남북전쟁(1861-1865)에서 전사한 사 람들의 추도식이 거행된 데서 시

작되었다고 합니다. 즉 북군의 장 군인 로선 장군이 전사한 병사들 의 무덤에 꽃을 장식하도록 명령 을 내린 것에서 유래했다는 것인 데 그래서 꽃을 장식한다는 의미 로 이 날을 '데코레이션데이' 라 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치루면

과 시민들이 알린던 국립묘지를 방문하여 참배를 하고 기념행사 를 갖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 주의 많은 도시들도 이맘 때가 되면 도시의 길거리에 전사 자들의 이름과 참전지의 이름이 적힌 십자가를 세워 추모하는 분 위기를 한층 북돋아줍니다. 심심

내지만 사실 한국전쟁은 아직 끝 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25 에 발발한 동족간의 이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953년 7 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은 57년 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상치 않은 움

60년 전에는 영문도 모르고 싸 웠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의 이념을 앞세우고 서로를 미워 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원수와 적으로 둔갑했습니다. 한 피 받은 한 형제자매들이 이념싸움으로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60년 을 지나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

고 있습니다.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 는 백성이라야 산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도 뜻도 모르면 개요 돼지다. 영원히 멧 에를 메고 멧돌질을 하는 당나귀 다... 남한은 북한을 소련 중공의 꼭두각시라 하고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라 하니 있는 것 은 꼭두각시뿐이지 나라가 아니 다.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6.25는 꼭두각시의 놀음이었다... 전쟁이 지나간 후 서로 이겼노라 했다. 형제싸움에서 서로 이겼노 라니 정말은 진 것 아닌가?"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서 전사한 모든 군인들을 기념하 는 날이 되었는데 국가적 공휴일 이 된 것은 1971년에 와서야 5월 의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데 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정한 이 메모리얼데이가 되면 전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요인

함께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 한 이들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마 다 웬지 모를 진한 감동이 몰려오 곤 합니다. 그런데 참 가슴이 아 픈 것은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분들이 희생의 피를 흘린 그 땅은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까마득하게 잊고 지

직임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계의 열강들의 움직임도 심상 치 않고 남과 북의 움직임도 심 상치 않습니다. 쓸데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천번 만번 바랍니다. 아니 천만번이라도 주님께 기 도합니다. 다시는 6.25 전쟁 때와 같은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리석었던 것이었는지 구소련이 무너져 내리면서 공산주의를 포 기하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아직도 이 싸 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38선에만이 아니라 서로의 가슴 에 휴전선을 그어놓고 싸웁니다. 동과 서가, 그리고 남한 내에서도 또 다른 '남북'이 이념싸움을 하

음에는 두렵고 아무것도 잡힌 것 이 없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 갈 때 희미한 청사진이 선명해지 고, 너무나 강하고 견고해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 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청사진은 수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 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 제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 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청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그 청사진대로 아름 다운 집이, 훌륭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농장 안에 건축물을 짓 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짓고, 주택도 짓고, 직원들이 머물 숙소 도 지어야 했습니다. 그전까지 저 는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 게 완성되는지를 경험해보지 못 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고생 하시며 준비를 하시는 장로님은 서울에 있는 저에게 건축사무소 에 가서 청사진과 자료들을 보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사무소에 갔다가 처음 으로 청사진이라는 것을 보았습 니다. 보통 설계도만 몇 장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 다. 물론 건물에 따라, 규모에 따

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이즈 가 아주 큰 두꺼운 한 권의 책이 었고, 각 설계도는 너무도 자세하 게, 그리고 가상의 공간을 그려본

래야 잘 지은 건물이 완성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청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막 지은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의 청사진에 의해서

람도 있고, 아직도 찾고 있는 분 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도 다른 길을 걷기도 하고 너무 늦 은 때에 그 소명을 깨닫고 후회하 기도 하고, 알지만 여러 가지 사 정으로 피하기도 하고 도망하기 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은 어떠하 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를 향한 청사진이 있다는 것입니 다. 아직 현실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 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를 보면

박종길 칼럼



박종길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봅니다. 처

음에는 두렵고 아무것도 잡힌 것 이 없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 갈 때 희미한 청사진이 선명해지 고, 너무나 강하고 견고해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 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청사진은 수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 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 제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 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청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그 청사진대로 아름 다운 집이, 훌륭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청사진 (Blueprint)

다면 그 청사진만으로도 건물이 그려지는 놀라운 도면이었습니 다. 건물은 그냥 대충 그려서 지 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 명하고 확실한 청사진을 먼저 완 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짓 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 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입 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사명, 또 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향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길을 걷는 사

양은 가장 많습니다. 즉 오리는 수분 55.3%, 지질 27.6%, 단백질 16%로 이루어진 고단백 저 칼로리 건강식품인 것이지요. 특히 오리의 살코기는 쇠고기 보다 비타민 B1이 평균 5배 더 많고, 또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

오리고기 먹으면 좋은가요?

의 소비량이 될 것으로 예상한 다는군요.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 도 가끔씩 찾는 음식 중 하나 인 오리고기는 맛이 고소하며 담백하고 쫄깃하면서 건강에도 보탬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육류 중 지방의 양이 가장 적고 단백질

산과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포 함되어 있는 반면 콜레스테롤 의 함량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보다 훨씬 적지요. 오리고기에는 지방분해를 돕는 성분인 CLA와 L-카르니 틴이란 물질이 함유돼 있어 콜 레스테롤치를 낮춰주는 효능 도 있으므로, 고혈압이나 심장

병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걱정 하는 분들도 비교적 다른 육류 보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 서 웰빙 영양식으로 손색이 없 습니다. 또한 비타민A가 들어 있어 소화흡수율을 도와주므로 비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육류로서는 특이하 게 미네랄을 많이 함유한 알칼 리성 식품으로서, 고지방 육류 식품관으로 인하여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어 암 동맥경화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조심스런 것은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성인병을 예방 한다든지 치료하는 효과를 과 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고 보지만, 채소류에서는 잘 얻 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위 해 육류섭취는 성장기와 병회 복기 그리고 노년층 식단에 꼭 필요합니다. 아미노산이 부족 하면 피부탄력이 떨어져 늘어 져 보이므로, 건강과 미용을 위 해서는 다이어트 중이라도 육 류를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겠 습니다. 아미노산은 피부조직 에 콜라겐을 공급해 피부노화 방 지 즉 안티 에이징에 필수적 역할을 합니다. <본초강목>에는 오리고기가 비장 위장의 허약함을 치료하 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여 특 히 체력이 약하거나 병회복기

에 먹으면 배가 불룩하게 부어 있는 것을 다스린다 하였습니 다. 아울러 해독작용이 돼지고 기 못지않으며 성질이 차갑지 않으므로, 체질이 찬 사람들이 돼지고기 복용 시 설사를 자주 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어 황 사가 유행하는 시기나 중금속 중독 시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리법의 종류도 대 단히 많이 가정에서 간편히 할 수 있는 오리고기 로스를 비롯 해서, 진흙구이, 수육 등이 보편 적이고, 이외에도 중국 북경식 오리구이도 유명한데 오리고기의 껍질 부분은 지방성분도 많 고 영양소도 상대적으로 적으 므로 되도록 살코기 부분을 먹 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 칼럼



이명종 교수
LA 동국대 한의대학 재학학과

한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오 리고기 붐이 일기 시작하더니 그 소비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올해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 기가 폭발적이라는 보도를 최

근 보았습니다. 2010년 1~3월 의 소비량이 1,600만 마리를 넘 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에 달했다는데, 오리도 다른 보양 식품처럼 여름철 소비량이 많 은 걸 감안하면 올해는 1억 마 리 즉 국민 1인당 2마리 정도

기독교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출발일: 9월 27일, 10월 25일



기독교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스라엘 6박 7일

\$2800 \$2150

방문지: 텔아비브, 예루살렘, 마사다, 쿨란, 갈릴리, 가버나움, 베들레헴, 가이사라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3300 \$2599

방문지: 카이로, 시내산, 타바, 에일랏트, 페트라, 암만, 느보산, 예루살렘, 사해, 쿨란, 텔아비브, 음바, 갈릴리, 가버나움

2000년전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 1. INCLUDE 갈릴리 유람선, 호텔/차량/식사 비용, 가이드, 국제선 항공권
- 2. EXCLUDE 비자 FEE, 이스라엘 출입국세, 벳산으로의 국경통과시, 실로암 입장료
- 3. OPTION 시내산 낙타등반, 흥해해저 수족관, 가이드/드라이버 TIP, 식당 TIP, 음료, 기타 개인 소요비용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l. 213-388-4000

http://www.usajutour.com, aju@usajutour.com, ajutour@hotmail.com(LA본사) Fax. 213-387-1006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이머와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이머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휘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김기형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이삿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 항상 정성...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은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은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JAMES JHUNG (제임스 정)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SK smart-naephone

- SK한국전화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213-435-0608

반값으로 할수있다!

-차바디수리 50% 절약-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정금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자재사삭,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있는 현대통운의 이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재물 관리 서비스 보편 서비스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www.Hyundaemoving.com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침대커버/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MR 박을 찾아주세요!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 미국

당일 동시 (고액 전문)

(213) 388 - 4989

소액도 가능합니다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l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HIS.COM 출장수리전문

오픈기법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구,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213-810-4000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윈도우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견적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돌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엔브랜트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현대, 휘너, 삼성등만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이전 1위

에어컨 수리 & 설비 전문업체

에어컨 수리 & 설비 전문업체

323.255.0011 / 213.200.5388/amazingaircon.com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6월 7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민원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지금 쓰고 계신 집전화와 비교해 보세요!

30일 환불보장

[글로벌 플랜]

\$9.99 /월 TAX 포함

로컬/장거리/한국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글로벌 플러스 플랜]

\$14.99 /월 TAX 포함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단,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준에 쓰던 전화기와
전화번호 그대로!

전화비는 낮추고,
서비스는 업그레이드!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는 유지하고 싶지만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걱정하신 분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한국 등에 국제전화를 많이 가시는 분
- 미국 인터넷 환경에 맞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 영어가 불편해 한국어 고객센터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 외출시에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국제전화를 걸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가입하시면,

- ☑ '나만의 한국전화번호'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 '간편한 전화카드 가능'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 개통비(\$29.99) 면제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한인 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 사업자 상담 전화: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아 · 이 · 토 · 크 · 비 · 비

iTalkBB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1-800-875-8318 고객센터 ☎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과다 전화 가입에 의해 요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요금에 따라 통화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화 요금은 지역, 국가, 시간, 통화 종류, 사용량에 따라 다르며 국제 통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기간 3개월 동안 15% 할인 가격에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 내 서비스 중지는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기타 계약 내용은 계약서 참조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 사항은 www.Korea.iTalkBB.com 또는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1-800-872-2902 전화가 가능합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태극 전사의 **16강 진출**을 기원 합니다.

한국에서의 명차 에쿠스가 미국에 드디어 옵니다.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50대**를 확보하고,
\$99을 내시고 예약을 하시는 분께 명차를
 우선적으로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회자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년 제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6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현대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3YR STK:031704



2010 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T.D.O \$2,999/12K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 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T.D.O \$1,999/12K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 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3YR STK:049539



6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9 HONDA ACCORD WHITE STK:P021316A
 2007 CHRY TOWN&COUNTRY RED STK:P304471
 2005 HONDA PILOT EX BLACK STK:025133BA

2007 HYUNDAI AZERA LTD GRAY STK:P185167
 2008 HYUNDAI AZERA LTD SILVER STK:P295894
 2009 HYUNDAI ELANTRA SILVER STK:P618846
 2008 HYUNDAI ENTOURAGE GRAY STK:P052717
 2009 HYUNDAI GENESIS SILVER STK:P031934
 2009 HYUNDAI GENESIS WHITE STK:P048693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P586665
 2003 MINI COOPER CONV. PURPLE STK:568848A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8 NISSAN ALTIMA GRAY STK:P199144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펜자타운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앤디 킴



스티브 박



지나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